

70인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성경적 전도운동 25시 -복음으로 여는 사도행전- 다니엘 12:3, 사도행전 13:48

정윤돈 목사님

- * 단12: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 * 행13: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램넛트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성공자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부터는 국민일보를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게 되었다. 국민일보를 통해서 앞으로 중직자들, 전도자들이 어떻게 산업현장에서 전도하는지 취재하여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램넛트, 청년 중에서 국민일보 기사를 모집하고 있다. 기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추천을 받아서 미디어전쟁시대에 확산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본격적으로 후원을 시작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미리 준비하여 나의 인생 신앙의 여정이 예레미야처럼 작품으로 남겨져서, 방송, 신문으로 올려질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다니엘 12 장 3 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한다. 영원한 것, 영원을 말한다. 만일 우리들이 오직 전도에 올인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지금 이 땅에서도 앞당겨 받게 될 것이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육 간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고생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아브라함도 은근히 풍요로웠다. 하나님으로 결론냈기 때문이다. 요셉도 노예로 끌려갔지만 이 땅에서 총리로 누렸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난하고 고생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특별히 거지 나사로는 거지가 되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절대 주권을 은혜롭게 받은 사람이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과 축복을 누리라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두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13 장 48 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확한 복음과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다.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고 모든 부분을 살릴 RUTC 를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행복자, 예수 믿는 자로 보여야 한다. 내 마음 속에 복음에 대한 확신, 램넛트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 엘리트들을 붙여주시는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이 인생의 방향을 맞춘다면 참된 성공자이며, 행복자이며 정복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사람이 성공자이다. 이미 이 예배의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성공자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다. 다른 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내가 예배자로서 살아가야겠다.’ 이 결단이 중요한 것이다. 그 후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해야 할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하고자 한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성경적인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의 방법들이 모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도 이 언약의 여정의 흐름 속에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28 장 전체의 흐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인 1 장부터 12 장까지의 중심인물은 베드로이고, 13 장부터 마지막장인 28 장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1) 사도행전 1 장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마가다락방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1 장 1 절은 그리스도, 1 장 3 절은 하나님의 나라, 1 장 8 절은 성령충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1 장 1 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의미한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다. 사도행전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누가복음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나면,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하면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 여정을 그대로 가게 되어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전도의 전략, 방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훈련을 하다보니까 선교사, 전도자들이 많이 모이다보니 합숙도 생기고, 팀합숙, 전도합숙이 생기는 것이다. 복음을 깨달으니까 문이 열리는 것이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로마까지 역사하시는 것이다. 1 장 3 절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 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 그리스도인들의 절대미션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1 장 8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다. 성령충만, 성령인도를 받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모든 것이다. ‘땅끝까지 237 나라의 증인이 되라’가 아니다. ‘되리라’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오직 예수만 하면 된다. 문은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있다. 기초를 잘 다지면 최고까지 올라갈 수 있다.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1 장 14 절에 보면 최초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오직 예수와 오직 복음을 위해 올인한 사람들이었다.

(2) 2 장 1 절에서 4 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 성령께서 임하신 결과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고, 2 장 9 절에서 11 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15 개국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준비해 두셨다. 우리가 오직 예수로 결론내면 우리 램넛트들은 70 나라에 지교회, 사업하는 분들은 70 나라에 대리점을 만들어야 한다. 전도자들은 70 현장에 제자를 세워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란다. 되게 되어있다. 아주 쉽다. 오직 예수님으로 행복하면 된다. 2 장 14 절에서 36 절에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온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불과 50 일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었다. 2 장 37 절에서 41 절을 보면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3 천 명이나 되었다. 이런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참사랑교회에 한두 달 밖에 안 갔는데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껴져야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는 것이다. 2 장 37 절에서 41 절 말씀을 보았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허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 하더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50 일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완전히 거듭났다. 그러니까 3 천 명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왜 전도가 안 돼요?’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기를 바란다. 왜 오직 그리스도로 확신이 안 되는가. 다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다른 것도 안 된다.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관심이 있으면 나머지가 다 해결되게 되어있다. 그 응답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 3 장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고쳐주면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3 장 6 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구걸하고 있는 이 앉은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셨다. 그 전에 베드로는 은과 금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다. 이제는 완전히 거듭나서 돈, 자리,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에서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아서 행복하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오직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

(4) 4 장은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체포되어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에 대하여, 5 장은 야사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시험에 빠

진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을 통해 6장과 7장을 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를 살릴 일곱 명의 중직자를 세웠다. 풍족할 때가 아니라 궤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중직자가 필요한 것을 알고 세운 것이다. 이 중에서 스테반 집사는 순교까지 하였고, 8장에서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지를 통하여 선교의 문을 열었다. 순교를 사도들이 먼저 한 것이 아니다. 집사님들이 먼저 했다. 선교를 목회자들이 먼저 한 것이 아니다. 집사님들이 먼저 문을 연 것이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중직자들이 중요한 것이다. 현장을 살릴 사람은 중직자이다. 이렇게 오직 예수로 결론 난 마가다라방의 제자들과 중직자들이 준비되었을 때,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회심하게 해주셨다. 우리들이 결론을 내면 전도자, 사명자, 서밋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군대를 대동하여 가고 있는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회개시켜 주셨다.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결론만 내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엔돌핀 박사로 유명한 이상구 박사의 간증을 들었다.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면서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서 요트도 사고 집도 두 채를 가지고 있다. 어느 날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마음 속에 공포감이 들었다고 한다. '내가 이것들을 놔두고 병들고 죽으면 어떡하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다. 친구들이 성경책을 주었을 때 찢었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 믿음을 찾게 된 것이다. 아주 제대로 믿어야 하니까 율법적으로 믿는 장로교회에 갔다가 이긴 아니다 싶어서 제 7일안식일교회로 갔다. 어느 날 3개월 밖에 못 사는 사람이 와서 '박사님 제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물었다고 한다. 그 사람은 교리에 따르면 자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30년 동안 있었는데 이런 교리가 있는 줄 몰랐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절을 보여주었더니 그 사람이 이제까지 자신이 30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읽었다고 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은 줄 믿기를 바란다. 영생을 얻은 줄 믿기를 바란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나중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 우리는 말, 행동, 모든 것이 항상 죄 짓고, 악하다. 그러나 그대로 살 수 없다. 부족하지만 도전하는 것이다.

(5) 10 장은 로마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 대해서, 11 장은 안디옥 교회에 대하여, 12 장은 감옥에서 천사에 의해 기적적으로 풀려난 베드로에 대해서, 13 장에서 무수, 16 장 점술, 19 장 우상, 20 장까지는 사도 바울팀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에 대하여, 16 장에는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17 장에는 데살로니가에서 아손을 만나서 교회를 세우고, 18 장에는 고린도교회를, 19 장에는 에베소교회를 세웠다.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다. 20 장부터 28 장까지는 사도 바울팀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우리들이 전도와 선교를 하면 할수록 참고하고 적용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

2.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에 숨겨진 성경적인 전도전략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는 다라방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라방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전도와 237 나라, 5천 종족의 선교를 위하여 모인 70인 제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다라방 전도의 키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다. 또한 다라방전도란, 충성된 자, 갈급한 자, 사명자들에게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될 때까지 복음메시지와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스스로 치유되어서 내가 알아서 전도하고 은혜 받으면 그 때는 다라방을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자꾸 넘어지고 빠지고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다라방 해 주어야 한다. 사명자는 사명자다라방을 해야 한다. 그 사람은 충성된 자, 사명자인데 전도와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면 정말로 좋은 전도자가 될 수 있는 복음엘리트이다. 사명을 심어주는 다라방인 것이다. 누기복음, 사도행전은 엘리트 누가가 엘리트 데오빌로에게 한 다라방, 탐사역인 것이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팀이 이 일을 하였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2) 두 번째로는 탐사역이다. 탐사역에는 탐사역전도와 탐사역포럼이 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기 전에 항상 탐형성을 해 주셨다. 마가다라방의 팀, 베드로팀, 바울팀이 그것이다. 그래서 전도를 하러 갈 때는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 내가 빠져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탐형성이 바르게 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 수 있고 자연스럽게 열리게 된다. 그리고 탐사역포럼이란,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상담을 하고, 복음을 이해시키고, 잘못된 믿음과 생각을 치유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성도들이 오래 교회 다녀도 복음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중간사역자, 사명자들이 잘 전달해주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영적인 과외를 해 주는 것이다. 탐사역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고 모르는 것을 알려주

어야 한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있다. 이것이 바로 탐사역이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데오빌로에게 탐사역을 했던 것이다. 마가다라방에서도 탐포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제자들을 만났을 때 탐포럼을 하였다. 그리고 숨겨진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길에서나 가정에서나 감옥에서도 탐포럼을 통하여 그들을 치유했을 뿐 아니라 복음전도에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사명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3) 미션홀이다. 사도행전에 숨겨진 전도전략 중 가장 중요한 전도방법은 미션홀 전략이다. 가정, 집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자들은 가정 즉, 집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가정은 지역을 복음화하는 교회와 RUTC의 역할을 하였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곳을 지교회와 RUTC로 삼아야 한다. 곳곳에 복음 깨달은 여러분이 지교회, RUTC이다.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교회가 되었다. 빌립보에 있었던 루디아의 집은 마케도냐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센터의 역할을 하였다. 아손의 집은 데살로니가 복음화의 중심이 되었다.

(4) 전문사역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당시 세계복음화는 엘리트들과 전문산업인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도 전문인이었다. 데오빌로도 당시 로마의 최고위 정치지도자였다. 사도바울 또한 최고의 전문인이었고, 성경과 학문에 능통한 복음엘리트였다. 여성전문산업인이었던 루디아는 전도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배워서 잘 전달해야 한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평생 동안 바울팀의 보조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담당해주었던 전문산업인이었다. 사도 바울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로 갔고,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진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을 절대미션과 절대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곳이 전문사역이다. 결국 왕 앞에 서고, 최고의 자리에 섰다. 서밋이어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5) 지교회이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팀들은 가는 현장마다 지교회를 세웠다. 최초로 세운 지교회가 안디옥교회였다. 바울팀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 전체와 마케도냐, 아가아와 로마에까지 가서 지교회를 세웠다.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참사랑교회 지교회를 세워야 한다. 평신도도 평신도지교회를 세우면 된다. 이것이 바로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운동이다. 사도행전에 숨겨진 이 전도의 방법이 하나님의 전도시간표 25시이다. 25시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결론으로 오늘은 사도행전에 숨겨진 하나님의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시간표 25시 안에서 미래 전도 6가지 그릇인 LVTNPO를 발견하기로 하겠다.

1. Leverage(도구, 지렛대), 영적인 지렛대이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충만이 전도와 선교의 영적인 지렛대이고 하나님의 25시이다.
2. Vessel(그릇, 내용, 용기), 영적인 그릇이다. 마가다라방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와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생명 건 헌신을 할 정도의 믿음의 그릇을 갖춘 제자들이었다. 이러한 그릇을 우리도 갖춰야 했다.
3. Transmission(전달, 전송, 미디어), 트랜스미션이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잘 공부하고 실천하여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비밀을 237 나라로, 5천 종족들에게 전달해야 하겠다.
4. Platform(모든 작업), 영적인 플랫폼이다. 우리는 21 세기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플랫폼의 응답을 받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5. Nobody, 다음은 노바디아이다. 즉, 네피림의 문화를 능가할만한 작품을 만들어야 하겠다. 이것이 플랫폼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6. Outsourcing(모두), 영적인 아웃소싱이다. 우리들은 성경적인 전도방법 25시를 통하여 모든 현장, 모든 분야를 복음으로 살리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하겠다. 이것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들이 만약 마가다라방의 70인 제자들처럼 오직 예수의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응답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끝으로 사도행전의 전도자들처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 나의 70 현장에 성경적인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세팅하는 데에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었지만 불러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향한 절대미션, 237 나라를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릴 절대미션에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믿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히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시스템을 전 세계에 세울 수 있는 70인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